2주년 동국대 건학위 "청년불자 양성 주력"

5월 2일 본관 중강당서 기념식
건학장학기금 17→50억원 확대
역대급 취업박람회 등 성과 多
'청년불자 양성' 신규과제 제시
새 건학장학생 41명 증서 수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5월 2일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주년을 맞은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대학생 · 청년불자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이하 건학위원회)는 5월 2일 본관 중강당에서 건학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건학위원장), 이사 호산 · 원명 · 경우 · 종호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채석래 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동국발전이 곧 불교중흥"이라는 고문 자승 스님의 원력으로 2021년 4월 출범한 건학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동국건학장학,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등 장학제도를 신설해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장학기금의 토대는 자승 스님이 마련했다. 스님은 자신의 사재를 보시하고 선사화전을 열어 17억 원을 마련했다. 이를 마중물로 각계각층에서 장학기금들이 답지했고, 현재 장학기금은 50억 원으로 확대됐다.

사찰과 재학생을 연계한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은 새로운 장학모델로 부상했다. 사찰 스스로 '우리가 선발한 특별한 장학생' 이라는 애정을 갖게 하고, 학생들 역시 '출신 지역 사찰에서 선발된 장학생' 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긍정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일 처음 개최한 교내 취업 박람회는 삼성전자, 테슬라 등 국내외 주요 기업 289곳이 참여해 역대급 취업박람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가 박람회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어서 화제가 됐다.

고문 자승 스님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청년불자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건학위원회는 모든 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며 급변하는 사회와 시대의 요청에 따라 사회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에 화답하여 학생들은 건학의 의미가 담긴 취지를 선명하게 새겨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누구보다 솔선수범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불자 양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자승 스님은 "대학생은 초중고 학생들을 이끌어줄 스스로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확신을 통한 자신감으로 사회에 당당히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동국발전과 불교중흥, 그리고 인류사회의 번영이 모두 하나의 필연적 인연임을 굳게 인지하고 실천해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재웅 총장은 2주년 주요성과와 올해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건학위원회 3년차 계획으로는 △학생취업 및 장학 △제2병원 건립 △디지털 대장경 제작 △고등교육 통합 확대 △청년불자 양성 △명상 체계 고도화 △건학이념 구현도서 발간 △건학이념 구현 강화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호평을 받았던 취업박람회를 오는 9월 다시 개최하며, 더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박람회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학생들에게 실질적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박람회로 만들 계획이다.

장학사업은 선순환 모델 구축에 집중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기부금을 바탕으로 장학금 수혜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졸업생들의 장학기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포함된 디지털대장경 구축 사업은 미래형 K-부디즘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대장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화여고 인수합병 경험을 바탕으로 고등교육기관 및 사이버대학 인수도 추진된다.

동국건학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동국대 서울캠퍼스 30명, WISE캠퍼스 8명, 의료원 3명 등 총 41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 동국건학장학은 졸업까지 최대 6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장학으로 미래 한국을 이끌 엘리트 육성을 위해 지난해 신설됐고, 2기로 선발된 학생들이 이날 장학증서를 수여 받았다.

숫자로 보는 건학위원회 2년

5,000,000,000	동국건학장학기금
10,000	2022 취업박람회 참여 학생
730	건학위와 함께한 날(5월 2일 기준)
570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생 수
289	2022취업박람회 참여 기업
32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사찰 수

佛母 계찬 조성 '석가삼불좌상' 보물된다

문화재청, 5월 3일 지정 예고… '아미타구존도'도


보물로 지정 예고된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조선 후기에 활동한 승려 장인 계찬이 조성한 석가여래삼불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순천 동화사에 봉안된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아미타여래구존도 등 총 4건에 대해 국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5월 3일 밝혔다.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은 수조각승 계찬을 비롯해 인계, 영언 등 7명의 조각승들이 1657년(효종 8) 완성해 동화사 대웅전에 봉안한 삼불상이다. 세 불상의 복장 유물을 통해 조각승 간의 협업과 분업, 불상 제작에 필요한 물목과 공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큰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불상을 조성한 계찬은 17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조각승으로 응혜와 승일 등 당시 대표적 조각승의 작업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상들은 계찬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사례이다.

문화재청은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은 제작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조성발원문 등의 기록자료가 존재하고 계찬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유일한 작품"이라며 "조선 후기 불상 양식의 중요한 전환기에 위치한 작품"이라고 지정 예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박물관에 소장된 '아미타여래구존도' 는 1565년(명종 20)이라는 제작연대가 정확한 조선 전기 불화로, 화기에 조성연대, 화제, 시주질 등이 기록돼 있다. 조선 전기에 그려진 아미타여래구존도는 6점이 현존하는데, 국내에 있는 작품 중 유일하게 제작연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채색 불화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은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는 고려 후기~조선 전기 불화의 형식과 양식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자, 1565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 있어 조선 전기 불화 연구에 절대적 기준이 되는 자료로써 중대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며 "조선 전기 불화는 대부분 국외에 있고, 국내에 현존하는 작품은 그 사례가 드물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정 예고된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튀르키예 구호물품 전달

4월 29일~5월 1일, 현지 찾아
1만 4000명 대상 기초식품 등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이 4월 29일~5월 1일, 튀르키예 지진 진원지를 찾아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사진〉

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인명피해도 크지만, 물질적인 피해와 함께 삶의 터전을 잃은 심리적 불안의 여파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4월 29일~5월 1일 튀르키예 하타이주 레이한리 내 취약계층 2800가구(약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마을 의약품, 식물성 버터, 식용류, 밀, 쌀 등 기초적인 식품으로 인도적 지원 최소기준으로 고려된 42킬로그램 분량의 5인 가족 한 달 식량 구호키트를 전달했다.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인 아민 하산씨는 "우리는 이곳에 있는 시리아 난민이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이 지원에 대해 매우 감사드리고 싶다. 우리는 무슬림이지만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 대한민국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이 대부분인 저희들을 편견 없이 지원해주신 한국불교계에 아주 많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02)723-5101 임은호 기자

동국대-상월결사, '대학생 전법' 위해 손잡다

5월 2일 건학위원회 최고위서 업무협약 체결



학교법인 동국대와 (사)상월결사는 대학생 전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국대와 (사)상월결사가 대학생 전법 포교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동국대(이사장 돈관)와 (사)상월결사(이사장 자승)는 5월 2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건학위원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을 비롯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사)상월결사 상임이사 원명 스님, 이사 경우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동국대와 상월결사는 △대학생 포교 활성화 및 대학생 단체 지원 △대학생 장학사업 및 후원사업 △대학생 포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고위원회 4차회의에서는 '청년불자 양성' 을 건학위원회 5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대학생, 청년 포교에 매진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제3차 최고위원회 이후 변경된 건학위원회 구성 및 규정 변경 △2023년 기관별 건학위원회 중점사업 승인 △건학위원회 중점추진과제 승인 등을 의결했다.

향후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청년불자 양성' 을 위해, 합장의 생활화를 위해 '합장' 을 동국대 공식 일상 인사법으로 공포하고 매월 11일을 '합장데이' 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공양기도문 생활화를 위해서는 교내 모든 공양 장소에 '공양기도문' 을 게시하고 음원 제작 · 홍보, 동참 이벤트를 전개한다. 〈부처님생애〉, 〈불교성전〉에 대한 독서 릴레이와 소감문 공모전도 추진된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청년불자 양성은 한국불교의 당면 과제"라면서 "핵심사업 성공을 위해 동국 구성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김주일 편집국장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직원일동